

전남 국립의대 공모 '사업 적합·실행 가능성' 평가름

4개 영역·15개 평가지표 공개
의료현황 정성평가 논란 '보완'
"양 대학·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
통합 전제 '투트랙 방식'은 유지

전남 국립의대 공모에 대한 최종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사)은 31일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를 대상으로 정부 추천 공모 제안 요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종 평가 지표는 △의대·대학병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사업 적합성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대학 2병원 설립안 준수 △실제 추진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실행가능성 등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사업개요, 대학교육, 대학병원, 의대와 병원 운영계획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로 구성됐다.

용역사는 이날 자리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며 "대학과 도민의 여러 의견을 반영했다"며 보완했다고 밝혔다.

실제 용역사는 지난달 29일 사업 개요, 대학 교육, 대학병원, 운영 계획 등 4개 영역 및 14개 하위 지표를 공개했으나, 전남 22개 시군마다 편차가 큰 의료취약성 등 의료현황 지표는 정성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목포시와 목포대는 용역사의 평가지표가 국립대학병원 입법 및 설립 취지를 배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용역사가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평가주안점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해당 지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또한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전남 서부권의 34년간의 역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지 노력은 평가 지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정 지역을 의식한 역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차 공모는 15일까지 진행되며, 단독 응모 또는 응모 대학이 없을 경우 2차 공모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평가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면 및 대면, 현장평가를 통해 실시되며, 용역

사는 결과 종합 및 점수가 확정되면 추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모 진행 중에도 투트랙 방식 추진은 유지하며, 공모 최종 마감일인 20일까지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에이티커니코리아 오병길 파트너는 "대학과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

전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평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ACC 하늘마당 핑크몰리

완연한 가을날씨를 보인 31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이 가을단풍으로 물든 가운데 시민들이 하늘마당의 핑크몰리 길을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서 첫 '친환경 연료시스템 실증선박' 진수

목포 삼진산단... "선박산업 이정표"
"서남권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세계 최초로 한 선박에서 ㎾급 용량의 다양한 친환경 연료추진시스템을 탑재해 시험할 수 있는 실증선박이 목포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전남도는 31일 목포 삼진산단에서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엔진

등 친환경 동력원을 실증하는 선박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에는 김용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흥기용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최준근 한국메이드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진수식은 새로 만든 선박을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행사다. 이날 친환경 선박 연

료추진시스템 실증선이 공식적인 첫 항해를 알리며 대한민국 친환경 선박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길이 82.6m, 폭 18m, 2600톤 규모로, 세계 최초로 한 선박에서 ㎾급 용량의 다양한 친환경 연료추진시스템을 탑재해 시

험하게 된다. 실증선은 승선인원 25명, 선속 12.5kts의 성능을 갖추게 된다.

연구개발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앞서 암모니아와 이차전지, 수소 등 3종 이상의 친환경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실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난해 해수부로부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목포는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의 전략적 요충지로,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진수식을 계기로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개발을 앞당기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과 시험평가 설비를 활용한 기업지원 등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후속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해상실증선이 친환경선박 산업을 이끌 선도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기업유치를 통해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서남권 조선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전남일보 공동기획

항일·독립의 현장에서 영·호남은 늘 하나였습니다

영남은 광주·전남인이 영남인과 더불어 항일·독립·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함께 실천한 현장입니다.

한산도·노량 등 이순신이 이끈 전라좌수영 수군이 참여한 전투지에는 남도 수군들의, 진주성에는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김천일·최경회·고종후 등 광주·전남 의병들의 항일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부산 대대포에는 녹도 만호로 이순신 수군의 돌격대장이었던 정운 장군 순의비가, 민주공원에는 6월항쟁의 처음과 끝을 담당한 부산 출신 박종철과 광주 출신 이한열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영남 곳곳에는 항일·독립·민주화를 앞장서 실천한 남도인들의 혼이 서려 있습니다.

